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杨万里诗의 人文精神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文學科

龚 佳 佳

2018年 12月

楊万里詩의 人文精神

指導教授 趙 成 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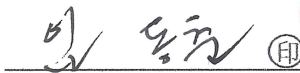
龔 佳 佳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 年 12 月

龔佳佳的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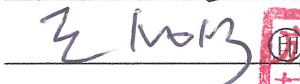
審査委員長

 (인)

委 員

 (인)

委 員

 (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8 年 12 月



## 개 요

양만리(楊万里, 1127~1206), 자는 연수(廷秀), 호는 성재(诚斋), 그는 육유(陆游), 범성대(范成大), 우무(尤袤)와 함께 “남송 중흥의 4대시인”으로 불리고 있다. 당시 그는 “시단의 주도권을 잡고, 천하에서 홀로 우뚝섰다”(执诗坛之牛儿, 四海诚斋独霸) 등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

양만리는 충효를 중요시하는 전통적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조 양전은 동한에서 유명한 대신이었다. 양만리는 10세 이후, 그의 부친 양푸로부터 훌륭한 교육을 이수 받았다. 그의 부친은 그를 데리고 여러 곳에 가서 학문을 연마하도록 하였다. 십여년의 시간동안 양만리는 선후로 王庭珪, 刘安世, 刘才邵등을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에 임했다. 그 이후 벼슬을 하면서 주전과 수령인 张浚, 张材, 丘璩 등의 사람을 만났다. 가정과 스승들의 영향으로 양만리의 성격은 강인하고 성실했으며, 험사리 자신의 의지나 주장을 부정하지 않았다.

양만리는 송, 금이 대립하던 시기에 태어났다. 그 시기 많은 북방의 영토가 이족의 통치하에 귀속되었었는데, 남송도 역시 안전하지는 못했다. 양만리는 많은 다수의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창생을 구원하고, 사령을 보조”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있었다. 그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서민들의 곤궁한 삶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비록 일생동안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사십 여 년 동안 과거에 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자초지종 자신의 개성과 독립적인 인격을 중요시하였다. 양만리의 시에서 대자연은 따뜻함이 넘치는 곳이다. 그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원시의 감각을 되찾음으로써 자연과 친연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그는 광범위하게 의인법을 통해 객관적인 경물의 묘사하였다. 하여 산수와 샘물과 인간 세상은 통일된 전체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선학사상은 양만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시가는 생동하고, 역동적이며, 정취가 새로우며, 종종 사회의 문제에 대한 시인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풍부한 인문적 사상을 담고 있다.

## 摘 要

杨万里，字廷秀，号诚斋，与陆游、范成大、尤袤一起被人合称为“南宋中兴四大诗人”。在当时有“执诗坛之牛耳”，“四海诚斋独霸诗”等评价。

杨万里出生于一个视忠孝为本的传统家族，其先祖杨震为东汉有名的耿介之臣。在杨万里十岁之后，他的父亲杨芾为使他得到良好教育，就带着他四方求学。在十几年的时间里，杨万里先后拜王庭珪、刘安世、刘才邵等人为师，并在此后的求学任官过程中谒见了主战派领袖张浚，结识了张材、丘密等人。在家庭和师友们的潜移默化下，杨万里形成了刚正不阿、诚实磊落、耿介敢言、不随流俗的个性特征。

杨万里生活在宋、金对峙的时期，大片北方土地沦陷于异族统治之下，而偏安的南宋王朝也处于岌岌可危的境地。杨万里和大多数诗人一样，怀抱着“济苍生，扶社稷”的伟大志向，他关注国家和社会，关心民生疾苦，即使在失职无位的处境下，仍然痴心不改。他虽宦海沉浮一生，身跻仕途四十余载，却始终保持着自身的个性色彩和独立人格。在杨万里的诗歌中，大自然是充满世俗温情的，他恢复了耳目观感的天真状态，广泛运用赋予客观景物以人的形态的拟人手法，将山水林泉与人间世俗融为一个整体。同时，禅学对杨万里的影响甚深。他的诗歌清新活泼，生趣盎然，透脱灵动，韵味非常，时时流露出诗人对社会中人的关注和思考，对人与自然和谐关系的追寻，蕴含了丰富的人文思想内涵。

## 目 录

第一章  서론 .....	1
第一节  선행연구 .....	1
第二节  연구동기 및 목적.....	8
第二章  인문정신.....	10
第一节  인문.....	10
第二节  인문정신.....	12
第三章  양만리 시의 인문정신.....	18
第一节  인간중심과 생활에 대한 관심.....	18
1) 자아의 개성과 독립적인 인격.....	19
2) 자유와 방임 인연을 따른 생활에 대한 추구.....	21
3) 소박하고 화목한 세속적 삶에 대한 지향 .....	24
第二节  자연친화.....	28
1) 자연을 사랑하고 일상에 주목하기 .....	29
2) 자연산수의 세속화 인정화.....	34
第三节  사회에 대한 관심.....	40
1) 서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관심.....	40
2) 사회현상 풍자.....	43
第四章  결론.....	49
참고문헌.....	50

# I. 서론

## 1. 선행연구

양만리(杨万里, 1127~1206), 자는 연수(廷秀), 호는 성재(诚斋,) 그는 육유(陆游), 범성대(范成大), 우무(尤袤)와 함께 ‘중흥 4대가(中兴四大家)’ , 또는 ‘남송 사대가(南宋四大家)’ 로 일컬어지며 남송(南宋)의 시사(诗史)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는 산수를 노래하고, 세대를 비판하는 시를 많이 창작하였다. 그의 시들은 익살스럽고 기이하며, 철학적 사상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양만리의 시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으로 비평하거나 연구하였다.

### 1) 양만리 시가의 품격에 관련된 선행연구

양만리는 “내적인 스승은 마음이고 외적인 스승은 조화(内师心源, 外师造化)” 라는 이론은 그가 수년간 시를 창작하면서 얻어낸 신념이다.<sup>1)</sup> 여기에는 융통적인 창작과 시의 의미중심적인 창작이 포함된다. 기타 시가와 마찬가지로 그의 시도 굉장히 개성적이다. 송대의 시단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수의 연구자들은 이를 중시했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해왔다.

刘海根 `彭月萍은 “융통성(透脱)” 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다. 그들은 “융통성” 은 양만리 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대체로 세 가지의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는 시인의 흥금이 넓다는 말이다. 즉 세속적인 것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둘째는 시인이 권위와 고정된 학문의

---

1) 金五德, <内师心源, 外师造化——杨万里诗歌散论>, 长沙水电师范学院(社会科学版), 1994 (04), p1-6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말이다. ‘옛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을 듣는다(不  
 听陈言只听天).’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를 추구한다. 셋째는 선인들  
 의 시가를 배워 기존의 구조를 탈피한다. <sup>2)</sup>이렇게 함으로써 시가의 예술적 정수  
 를 장악한다는 말이다” “유통성”에 대한 동일한 분석으로 李丽는 양만리의 풍  
 자시와 경물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는 양만리시가의 “유통성”은  
 그의 “넓은 흉금과 초월적 지향”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sup>3)</sup>

반면에 张玖青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양만리의 다른 시론 즉 “풍미” (风  
 味)설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 그는 양만리의 “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유가의 권선징악의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가의 미를 중시한다.” 둘째는 “작품의 정경과 생성의 미의 정취”  
 즉 “심미적인 것에 있어서 허(虚)와 실(实)이 서로 조합되며 취미를 얻는  
 다.” 셋째는 “열독(阅读)과 참여 재창작의 각도입론(角度立论)이다” 이는  
 즉 “역사 속의 의미를 갖는 구성들이 생기발랄한 생명력과 역사와 끊임없이 부  
 딛치면서 연속적인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양만리의 시의 미학적 본질은  
 “독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마음으로 체험하고, 외적인 열독을 내적  
 인 재창작과 결부하여 새로운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sup>4)</sup>

이밖에도 다른 학자들도 양만리 시가의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탐구를 하였  
 다. 李文祥은 양만리의 “시적인 맛” (诗味说)을 논술함에 있어 양만리의 시가  
 이론은 “시가의 사회적 교육 작용을 중요시하고 있다.”, “선인들의 길을 따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 “시는 사회와 생활로부터 창출된  
 다.”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하였다.<sup>5)</sup>

2) 刘伙根、彭月萍, <杨万里“透脱”说浅论>, 《井冈山师范学院学报》, 哲学社会科学版, 2002년8월,

p1-3

3) 李丽, <杨万里诗的“透脱”性表现>, 《河北职业技术学院学报》, 2005년 12월, p1-2

4) 张玖青, <杨万里的诗学味论新探>, 《沈阳工程学院学报》, 社会科学版, 2007년 10월, p1-4

5) 李文祥, <杨万里诗歌理论>, 《江西教育学院学报》, 1994년, p1-4

## 2) 양만리 시가 분류에 대한 연구

양만리 시가의 독특한 개성으로 그의 시가에 대한 자료도 매우 많다. 张瑞君은 양만리의 시가의 내용에 대해서 논술했었는데, 그는 양만리의 시가의 내용이 주로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애정”, “애국 감정을 유발하고, 유민들의 생활을 동정하는”, “정체적 추상을 풍자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며”, “자연 경관을 묘사하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의 시가는 사회의 생활을 반영하는 동시에 시인의 “고상한 인격, 광범위한 취향, 복잡하고 독특한 마음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sup>6)</sup>

양만리의 시에 대한 논의는 张瑞君밖에도 더 있다. 이를테면 양만리 시가의 내용과 특징에 주목한 연구들이다.

### (1) 풍자시

刘伙根 `彭月萍은 양만리의 풍자시는 대체로 “정치풍자, 사회풍자와 자아풍자 세 가지가 있다” 즉 “조정의 정치와 사회생활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적극적인 비평”을 했을 뿐 아니라 “작가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과 풍자”를 하였다. 그들은 “이는 작가가 시를 통해 천하를 바로잡고, 의미 이상의 의미를 추구하는 시 창작 방법론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7)</sup>

### (2) 산수시

韩梅는 양만리의 산수시의 세속화(世俗化)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 그는 이러한 특징은 주로 서정적 주인공의 형상 구축과 시가에서 형상화된 산수의 경치에서 표현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양만리의 산수시는 주로 “현실 속의 평범하고, 개성이 선명한 시인의 형상을 묘사”했다고 하였다. 그의 시가는 “대체로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서 소재를 얻는다.” 그리고 시에서의 자연적 의상과 시가에서 형상화된 의경도 “세속적 생활의 친절함과, 열렬함, 요란함”이 섞여있다고 했다.<sup>8)</sup>

6) 张瑞君, <广阔社会生活与丰富内心世界的表现——杨万里诗歌的内容>, 《忻州师范学院学报》, 2001년 12월, pp1-6

7) 刘伙根、彭月萍, <论杨万里的讽刺诗及其诗学底蕴>, 《江西社会科学》, 2007년 4월, pp1-4

8) 韩梅, <论“诚斋体”山水诗的世俗化倾向>, 《中国海洋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07년, pp1-4

韩梅의 연구 외에도, 宋道基도 양만리의 산수시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논술하였다. 그는 양만리의 기행시는 “자연스럽고, 새로우며, 유머감이 뛰어난” 성격이 있다고 한다. 이는 “도(陶), 하(谢), 왕(王), 명(孟)의 정이 극에 달하면 경물에 대해 묘사하고, 묘사할 수 없는 극한에 달하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刘勰语의 전통을 이어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산천의 기특함을 묘사하고, 거기에 내장된 심층적 의미를 풍부한 묘사를 통해 계승하면서 발전시켰다” 고 하였다.<sup>9)</sup>

### (3) 아동시

张连举는 양만리의 아동시는 유희도 있고 쾌락도 있다. 당시 방목하는 생활을 반영하기도 하고 신을 맞이하는 행사를 보여주기도 하고, 야채와 야생열매를 따고, 곡식을 심고, 눈싸움하고, 독서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처럼 “유희에 열중하고 귀여운 아동들을 묘사했다” 고 하면서 이는 아동들의 “천진난만하고, 단순유치하며 천성의 순진하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sup>10)</sup>

동시에 田月丽도 양만리의 아동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양만리의 아동시는 아동생활과 유희를 하는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고 하였다. 이는 대체로 아동들이 유희를 하는 장면과, 아동들이 방목을 하고 간단한 농사를 짓고 학습하는 네 가지 방면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는 “시인의 동심이 시가에서 다양하게 표상되면서 아동의 형상도 다양하게 표상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시인의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즉 시인이 동심과 인생의 철학을 교묘하게 결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 3) 양만리 시가의 예술에 대한 연구

양만리의 시가가 예술적으로도 상당히 자신만의 특색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의 시가에 대해 다 방면에서 연구를 하였다.

### (1) 언어예술

9) 宋道基, <只是征行自有诗——读杨万里的纪行写景诗>, 《柳州师专学报》, 1994년 6월, pp1-3

10) 张连举, <论杨万里的儿童情趣诗>, 《固原师专学报》, 社会科学版, 2001년 3월, pp1-4

11) 田月丽, <浅析杨万里的童趣诗>, 《井冈山学院学报》, 哲学社会科学版, 2008년 3월, pp1-4

張瑞君은 양만리의 언어는 “유창하고, 생동하며, 마치 물이 흐르듯이 아무런 제약이 없다. 강서파와 같이 현학적이지 않고 당시의 구어, 속어, 속담과 민요들을 자신의 시에 수용하였다. 그는 대체로 생동하고, 활발하며, 표현력이 강한 특징을 살리고, 투박한 요소들은 배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글자의 중복, 또는 한 글자의 반복적인 사용”, “글자 간의 연결 등의 수식법을 통해 연결성을 강조하여 흐름이 자연스런 특징을 고수했다.”

韓曉光은 양만리의 시는 “깊고 낮음의 조화” (淺深相映), “소밀의 배치” (疏密相宜), “완곡의 배합” (婉直相形), “고급과 저속의 조화” (雅俗相濟) 네 가지 방면에서 심미적 특징이 보인다고 하였다. 그는 “양만리의 시가에서 ‘화법’ (話法)은 언어의 형식과 원활한 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 지적하였다.<sup>12)</sup>

韓曉光의 다른 문장에서는 어조전환의 각도에서 양만리 시가의 언어예술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는 양만리의 언어는 주로 명사가 동사로 작용하고, 형용사는 동사로, 동사는 사동, 형용사는 명사로 의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그는 “양만리의 시가에는 종종 대칭되는 구절을 통해 어조의 품사전환을 한다” 고 하였다. 양만리가 시에서 품사의 전환의 방식은 “자가의 언어가 보다 간결하고”, “시가의 형상이 보다 생동하며”, “시가의 감정이 보다 함축적이고”, “시가의 형식이 보다 규범화되었다” 고 하였다.<sup>13)</sup>

## (2) 이미지와 예술적 경지

胡建升 `文師華는 양만리의 영원시(咏园诗)는 “성심을 통해 성의를 알고” (明心見性), “직각으로 깨닫고” (直覺體悟), “초월적 지평을 제시하고” (超越襟懷) “운명에 맡기고, 천지에 노니는” (隨緣任運) 네 가지 방면의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어 이는 “불가사상, 선운 시경원융의 특징” 과 “철학사변이 시경과 서로 조화롭게 배치하면서 이루어진 경지” 라고 하였다.<sup>14)</sup>

12) 韓曉光, <楊萬里詩歌語言的審美特徵>, 《井岡山學院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06년 1월, pp1-4

13) 韓曉光, <楊萬里詩歌中的語詞轉品及其表達功能>, 《景德鎮高專學報》, 2007년 9월, pp1-4

14) 胡建升、文師華, <論楊萬里詠園詩的禪學意趣>, 《南昌大學學報》, 人文社會科學版, 2006년 1월, pp1-4

张瑞君은 양만리의 사가는 “세미한 형상을 통해 큰 것을 깨닫고, 적은 것을 통해 많은 것을 얻으며, 아무런 특징도 없는 형상을 통해서도 새롭고 기이한 미를 발견할 수 있다. 스쳐 지나가는 시공의 형상을 포착하여, 새롭고 생동한 시의 경지를 개척하였다. 지루하고 고독한 경지에서도 새롭고 역동적이며 독특한 미를 포착한다. 심중의 형상을 수차례의 연결을 통해 반복적인 구조를 구축하여 독특한 왕복순환의 미감을 형성한다.” 고 하였다.<sup>15)</sup>

이상 양만리의 시가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각자의 문제점에 관하여 다각도로 심층적인 분석을 축적했다고 볼 수 있다.

역대의 연구자들은 양만리의 시가를 연구함에 있어 시학의 사상, 언어의 예술, 형상의 특징, 이학과 선학의 시가에 미치는 영향에만 중심을 두었다. 인문정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당송시가에서 인문정신에 대해 분석한 논문은 발견 하였다.

李青云은 당송시가중에 풍부한 인문적인 내용이 포함된다고 지적하였고 , 네가지 분류로 분석 하였다.

첫째, 당송시가는 적극적이며 낙천적인 인생태도, 인생을 사랑하고, 생활을 사랑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고, 열정과 희망을 안고 생활에 임하는 감정을 담고 있다. 당송시가에서 적극적이며 삶에 대해 낙천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시가는 매우 많다. 이를 테면, 이백(李白)의 “蜀道之难, 难于上青天” (촉으로 가는 길의 어려움이 푸른 하늘 오르기 보다 어렵구나), “天姥连天向天横” (천모산은 하늘과 맞닿아 하늘가에 비껴)은 열정적인 감정과 적극적인 삶의 지향, 웅장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시구들은 웅장한 고산과 대하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강렬한 생명력과 적극적인 인생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安能摧眉折腰事权贵, 使我不得开心颜” (어찌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꺾으며 실력자를 섬겨, 나로 하여금 즐거운 얼굴이 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단 말이다.)는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권위적인 것에 대해 아부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

15) 张瑞君, <杨万里诗歌的意象特征>, 《山西师大学报》, 社会科学版, 2002년 4월, pp1-4

둘째, 천하를 구휼하는 책임의식. 한 사회인으로써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안고 국가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며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이른바 인문적 배려하고 할 수 있다. 두포(杜甫)는 국가와 민중들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그 시대의 민중들의 삶과 내적인 고통을 시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国破山河在, 城春草木深” (나라가 망했으나 산과 강은 그대로 있고, 봄이오니 도성에 초목이 울창하네.)는 바로 시인이 국가와 국민들을 걱정하는 애국 감정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朱门酒肉臭, 路有冻死骨” (궁권 안에서는 술과 고기 냄새가 풍기는데, 거리에는 얼어죽은 해골이 나뒹구네.)는 빈부격차으로 인한 사회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독자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고 있다.

셋째, 진실하고 우호적인 정감의 체험. “两情若是久长时, 又岂在朝朝暮暮” (서로의 정이 영원하기만 하다면 어찌 매일 밤낮으로 같이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는 견우와 직녀에 대한 깊은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다. 이는 시공을 초월한 사랑에 대한 칭송이며, 구구절절 인문적 배려의 경지를 보여주는 높은 수작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생명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을 우리는 종종 “생명에 대한 사랑”, 혹은 “나는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한다. “今人不见古时月, 今月曾经照古人, 古人今人若流水, 共看明月皆如此” (지금 사람들이 옛날의 저 달을 보지 못하지만, 지금 저 달은 옛 사람들을 비추었으리라. 옛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물과 같이 흘러 가지만 함께 달을 보는 것은 모두 이와 같으리라.) 李白의 《把酒问月》에서 달은 인류의 영원한 참조물이다. 시가의 영원한 주제가 되고 있는데, 달의 항구(恒古)한 존재와 단축(短暂)한 인간의 생명이 항시 대조된다. 달의 밝고 어둡, 차고 이지러짐은 인간들의 이별과 상봉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주는 항구한데, 인간의 생명은 그다지도 짧다. 생명의 유한성을 이해하고 생명의 취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일말의 이유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생명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임해야 한다.<sup>16)</sup>

16) 李青云, <吟咏唐宋诗词建构人文精神——唐宋诗词人文精神解读>, 牡丹江大学学报, 2008, 17

이상은 李靑雲 당송시가의 인문정신에 대한 선행연구이었다.

## 2. 연구동기 및 목적

21세기의 오늘날 중국이 마주치게 된 거대한 과제의 하나는 바로 대학의 이념을 확립하고, 인문정신과 전통을 전승하는 것이다. 대학이 발전해야 사회가 발전하고, 대학이 망하면, 사회도 망한다. 많은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법칙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대학생은 시대의 정신을 대표하는 특수한 계층이다. 인문정신 또한 대학교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의 영혼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생들의 인문정신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공이(功利)적인 사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사회와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이익추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에 대학생들은 물질적 추구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된다. 이를테면 중국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인문정신의 부족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6.85%의 사람들만이 조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25.34%은 대학생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0.78%의 사람만이 예술가를 숭배한다고 하였다. 2.64%의 사람들은 문학가를 숭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빌 게이츠와 같은 돈 많은 사람을 숭배한다고 하였다. 32.71%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대가가 있어야 한다.” 29.92%의 사람들은 제일 큰 소망은 향후 5년안에 큰돈을 버는 것이라고 했다. 미래의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제일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수입이 86.45%, 전공분야가 40.47%, 직위가 40.02%를 차지하였다. 둘째, 도덕수준의 저하이다. 보도에 의하면 베이징시의 76개의 대학에서 강제퇴학과 학적박탈의 수는 적지 않은 것

---

(03) pp1-4

17) 李靑雲, *ibid*, p1



으로 드러났다. 그중에서 도덕적 해이로 인해 형법을 위반한 수도 적지 않았다.

18)

당송의 시가는 중화민족 문화의 정수이다. 당송시가는 중화민족의 인문정신의 결정체이며,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예술적 빛을 뿜어 왔다. 당송시가를 통해 우리는 그의 전체적인 인격, 기질, 풍골 등 중국의 전통적인 인문예술에서도 보기 힘든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당송시가를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의 맛을 본다. 인문문화는 한 인간의 감정의 수준, 인격의 수련과 습관의 양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자신의 확충과 영감, 및 창조적 능력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다.<sup>19)</sup> 이는 현재의 많은 대학생들이 결여하고 있는 소중한 품성이라고 본다. 하여 민족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그로인해 인생에 대한 태도나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도덕정치 교육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李靑云은 당송시가 명문들의 특징이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인생관, 천하를 책임지려는 사명감, 우호적인 감정, 생명의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는 풍부한 인문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20)</sup> 이 논문을 바탕으로 송나라 시인 양만리의 시에 대해 인문정신을 분석해보려 한다. 필자의 研究范围는 《양만리시선》<sup>21)</sup>에 수록된 시 53수이며 그중에서 人文精神의 특징이 뛰어난 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选别 한 시 43수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단 제3장 부분의 나온 시 《多稼亭前黄菊》 등 8수는 《양만리시문집》<sup>22)</sup>을 참고 하였다.

본고는 크게 4부분으로 나뉘며, 서론에서는 대체로 지금까지 양만리시에 대한 연구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제 2장에서는 인문과 인문정신에 대해서 논의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양만리 시를 통역하고 해설하며 양만리시의 인문정신에 대해 세 가지 방향으로 논증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18) 李靑云, *ibid*, p1

19) 李靑云, *ibid*, p2

20) 李靑云, *ibid*, p13

21) 이치수, 《양만리시선》, 지식올만드는지식, 2017.12

22) 王琦珍, 《杨万里诗文集》, 江西人民出版社, 2006



## II. 인문정신

### 1. 인문

한 사람의 정신세계는 대체로 4개로 나눌 수 있다: 과학, 예술, 신앙, 인문이 있다. 인문은 사랑을 추구하고, 융합, 감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sup>23)</sup> 이러한 감정은 진실하며 화합의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과학, 예술과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인류는 일종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모두 사람과 문화 활동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오한 인문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인문”이란 단어는 최초로 《周易》에 나오는데 :

“剛柔交错，天文也 °文明以止，人文也 °观乎天文，以察时变；  
观乎人文，以化成天下。”<sup>24)</sup>

“강한것과 부드러운 것이 뒤섞이는 것, 이것이 천문이고, 문명에 이르면, 이것이 인문이다. 천문을 관찰하여 사시의 변화를 살피고, 인문을 관찰하여 천하의 교화를 이룬다” 는 뜻이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뒤섞이는 것이 하늘의 문채(文彩) 즉 ‘천문(天文)’ 이라면, 인간 사이에서 밝고 맑은 마음이 있어 예의에 머무르는 것이 곧 ‘인문(人文)’ 이라는 말이다. 문자로 볼 때, “문”의 원래의 뜻은 교착된 무늬라는 말이었는데, 이를 연장하여 어떤 규율이나 도리를 지칭하는 말로 변모하였다. 인문은

23) 人文精神,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view/50585.html?wtp=tt>. 2008-03-27.

24) 《周易》中的《贲卦·象传》

“사람의 도리”(人的道理)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고대의 사람들은 “사람과 관련된 이치는 바로 문·도덕화”라고 이해하였다. 삼국시기의 王弼은 해석하기를:

“剛柔交錯而成文焉，天之文也，止物不以威武，而以文明，人之文也。°觀之天文，則時變可知也；觀之人文，則化成可爲也。”<sup>25)</sup>

강한것과 부드러운 것이 섞여 무늬를 이루면, 천문이고, 사물에 이르러 위력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인문이다. 천문을 보니 사시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인문을 보니 교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문명을 통해 천하의 만물이 각자에게 배분될 수 있다면 이는 바로 “인문”이라는 말이다. 당대의 공영달은 해석하기를

“觀乎人文以化成天下者，言聖人觀察人文，則詩書禮樂之謂，當法此教化成天下也。°”<sup>26)</sup>

인문을 살펴 천하를 변화 시키며, 성인이 인문을 관찰함을 실천하니, 시서예악의 이름을 조화롭고, 천하를 교화시킴이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인이 “인문”을 관찰하여 시서예악을 통해 천하의 중생을 교화시키겠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하나의 조화로운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이다.

---

25) 王弼, 《周易注》

26) 孔穎達, 《孔穎達疏》

“인문”이란 단어는 중국에서 고대부터 극도로 높은 존중과 중시를 받았다. <二十四史书>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圣达立言！化成天下，人文也。”<sup>27)</sup>

성인과 달인들이 한 말로써 천하를 변화시키는 것이 인문이다.

중국의 전통문화에서 “인문”은 바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하늘과 땅을 관측하고 자연과 사회를 관측한다는 말이다.<sup>28)</sup>

서방에서 “인문”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라틴어 humanitas에서 기원하였다. 이 단어는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가 만든 것이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라틴어 humanitas의 의미에 근거하여 영어에서 humanism과 humanities와 같은 단어를 만들었다.<sup>29)</sup> 대체로 서방의 “인문”은 “神文”의 상대적 의미로서 표상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인문은 일종의 동태적인 개념이다. 이는 즉 “인류사회의 각종 문화현상”을 지칭한다. 그중에서 “문화”는 사람, 혹은 하나의 민족이나 한 부류의 공통된 부호이며, 가치관이자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부호는 문화의 기초이다. 가치관은 문화의 핵심이다. 규범은 문화의 주요내용이며, 습관규범, 도덕규범, 법률규범이 포함된다. “각종 문화현상”이란 것은 인류문화의 선진적이고, 과학적이며, 우수하고, 건강한 부분과 핵심적인 부분을 가리킨다. 즉 선진적인 가치관과 그 규범인데 대체로 인간을 그 핵심으로 하고, 인간을 중요시 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관심하고 배려하는 것이다.<sup>30)</sup>

---

27) 《北齐书·文苑传序》

28) 陈雪婧, *ibid*, p1 pp25-26

29) 周玲玲, *ibid*, p1 pp27-28

30) 周玲玲, *ibid*, p1 pp34-35

## 2. 인문정신

인문정신은 역사를 통해 살펴볼 때 각기 부동한 시기에 각기 다른 인본주의적 철학사상, 인본주의 사상문화운동 및 인도주의 이상을 통해 표상되었던 것이다. 대체로 인류가 겪었던 세 번의 해방에서 표현된다<sup>31)</sup>: 인류의 첫 번째 해방은 몽昧한 원시상태에서 문명사회로의 진입이다. 야만적인 생활을 부정하고 보다 문명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고대 희랍의 자연철학에서 인본적인 철학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해방은 종교적 신학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세속의 길을 걷는 것이다. 현세의 생활은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대체로 “문예부흥”에서 보인다. 인본주의 사상문화의 운동에서 인류는 세 번째의 해방을 맞이하고 있다. 즉 극단적이고 단편적인 과학발전, 기계과 공업문명에서 해방되고, 물질주의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물질과 문명, 정신과 육체가 화합된 경지의 삶을 지칭하는 것이다. 세 번의 사상해방의 성과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인문정신을 하나로 귀납할 수 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은 오직 인간을 위한다는 문화정신을 강조하여, 인간이 만물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볼 때, 중국에서 인간은 만물의 최고 존귀자이다. 일찍이 《尚书》에서는 이미 이러한 말이 나왔다. “惟天地万物之母，惟人万物之灵”<sup>32)</sup> (천지는 만물의 어머니이고, 사람은 만물의 신령한 존재다). 뿐만 아니라 중국문화에서는 인간은 직접 천지의 변화에 참여하여 이른바 천지인삼재(三才)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순자는 일찍이 말하기를: “天有其时，地有其财，人有其治”<sup>33)</sup> (하늘에는 때가 있고, 땅에는 재화가 있으며, 인간에게는 다스림이 있다.) 천지만물에서 인간은 그 핵심이라는 것이다. 하늘은 땅을 낳고 기를 수 있고, 인간은 만물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주동성과 능동성

31) 周玲玲, *ibid*, p1 pp12-13

32) 《尚书·周书·泰誓上》

33) 荀子, 《天论》

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인문정신은 한 편으로는 생면의 본체를 중시하면서도 인생가치의 사상적 함의도 중시한다. 선진시기에 중국의 인문정신은 점차 형성되기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가는 “인”(仁)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맹자 순자 등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여 유가의 인문정신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인”의 인식적 의미와 가치는 궁극적인 배려로써 후세들의 도덕적 규범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개체가 사회, 그리고 집단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이 동물보다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특별한 지각이나 감정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어떤 것은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세상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각종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정상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 하에서도 자신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을 고수하고 타인을 해치지 않으며, 심지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다. 이는 아마도 인간이 실행하기 제일 어려운 이상일 수도 있다.

노자는 말하기를 인간이 만약 자연의 원리와 사회의 규범을 어기고 자신이 원하는 데로 개조하고 파괴하면 인간의 본성에도 영향을 주어 탐욕을 기르게 된다고 한다.<sup>34)</sup> 다시 말해 인간은 보다 간사해지고 교활하며, 기만과 범죄 등과 같은 행위들이 만연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장자는 노자의 사상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최고 목표는 바로 자신의 존재와 발전에 있다고 한다. 그는 인류의 불행과 번뇌는 타인이나 사회로 인해 조성된 것이 아니라 인류 자신이 자신에게 족쇄를 채워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간은 타인을 위해 혹은 집단을 위해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생전이나 생후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라고 한다. 인간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한다. 유가와 도가는 인문정신의 해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가는 인간의 대사회적 책임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반면, 도가는 인간의 독립 자주적 성격을 중요시한다. 인간이 우주공간에서의 지위가 중국 고전 인문

---

34) 陈雪婧, *ibid*, p1

정신 연구의 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가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사회와 국가 집단과 연결하여 군자와 지사는 도덕책임감을 마음에 품고 적극적으로 사회질서의 유지와 공공질서 및 인간관계의 유지에 임해야 한다고 한다. 사회적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도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가는 도덕과 예교는 모두 허위적인 것이어서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고 세속적인 공리를 벗어난, 도덕과 예교에 구속되지 않는 자연귀속적인 생명을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여긴다.

인문은 오로지 현실사회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만 자신의 인생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인간은 원래부터 자신의 염원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 일정한 도덕적 규범은 이 사회가 보다 안정하게 발전하는 전제이기도 하다. 유가의 인문정신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사회국가의 전체와 연결시킨다. 그리하여 군자는 “인”이라는 도덕적 수양을 통해 사회정치의 질서와 인간관계를 유지하라고 요구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가치의 수호를 통해 자신 개인의 가치도 실현될 수 있다는 말이다. 노자를 중심으로 하는 도가는 사람의 독립적인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여 자연을 우주만물을 지배하는 기본규칙으로 하고 인간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규정한다. 즉 우주에서 인간의 가치와 지위를 하찮은 존재라고 말한다. 이로 볼 때 유가는 적극적인 현실참여를 격려하고 도가는 현실초월의 사유를 담고 있지만 모두 인생과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한 사유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여 오늘의 학자들은 유도의 상호보완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중국의 인문사상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다.<sup>35)</sup>

중국의 전통적 인문정신의 다른 중요한 내용은 “천인합일” (天人合一)이다. 孔子《论语·八》에서 말하기를 “获罪于天，无所祷也”<sup>36)</sup> (하늘에 죄를 지으면 기도할 곳도 없다)고 하는데 일종의 최고의 가치와 원칙을 말하는 정신적인 경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맹자가 지적한 것처럼 “尽其心者，知其性也，知其性也，则知天也”<sup>37)</sup> (마음을 다하면 바로 자신의 본성을 알아가는 것이다. 본성을 알아

35) 陈雪婧, *ibid*, p3 pp1-2

36) 孔子, 《论语·八》

37) 孟子, 《尽心上》

가는 것은 천명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말이다) 孟子《尽心上》; 혹은 자연 속성이나 운동법칙을 따른 자연계를 일컫는 말이다. 이를테면 순자가 지적한 것처럼 ‘明于天人之分’<sup>38)</sup>(천과 인 그냥 분리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신의 분양을 지켜야 함, 서로 교체할 수 없다는 말이다.) 荀子《天论》. 혹은 사람의 마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격신이라고 한다. 중국의 원시문화에서의 자연숭배와 조상숭배의 “천인합일” 사상이 생성된 후 이는 중국의 고전 지식인들의 이상적인 가치와 목표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인간의 법도를 통해 천도를 개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천도를 통해 인도를 규범하기도 한다. 중국의 고전 인문정신은 중국 전통문화의 깊숙이 뿌리박혀 중국 전통문화의 정수인 유도사상에 체현되고 있다. 이는 곧 중국의 고전 인문정신의 특질이기도 하다. 중국의 전통 인문정신은 중국의 전통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전통문화의 정수인 유도양가에서 지일 집약적으로 체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전통적 인문정신은 중국 전통문화가 긴 역사의 세월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생성된 것이다. 이는 자신만의 독특한 발전공간과 전통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도덕수양에 대한 중시, 예악문화에 대한 존중, 독립적 인격의 추구가 포함될 수 있다.<sup>39)</sup>

서방에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서방의 인문정신은 대체로 “인문주의, 인본주의, 인도주의”라 분류된다. 협의적인 인문정신은 문예부흥시기의 일종의 사조를 가리킨다. 이는 이태리에서 발원하여 유럽에 전파되었다. 발원지는 이태리였다. 광의적인 인문정신은 유럽 즉 고대 그리스의 일종의 문화전통을 일컫는다. 그 해석적인 사상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간을 관심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학이 인성을 억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이성을 선양하는 것이다. 즉 신학이 이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셋째는 영혼과 육체의 화합을 주장하는 것이다. 세속적인 삶에서 초월적인 정신적 추구를 하는데, 신학과 영육의 대립을 반

38) 荀子, 《天论》

39) 陈雪婧, *ibid*, p1

대하고, 천국의 생활로써 세속적인 삶을 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서방의 인문정신은 사람을 관심하는 것이다. 특히 사람의 정신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특히 사람의 정신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존중한다.<sup>40)</sup>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서방과 중국의 인문정신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서방 문화에서 인문정신은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심층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문화에서의 인문정신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합리적인 도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 심층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는 인간이 자연세계와의 구별을 보여주는 법칙과 질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서의 인문정신은 모두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간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고, 인간의 현실생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인간의 자유평등과 해방의 사상을 담고 있다.<sup>41)</sup>

---

40) 周玲玲, *ibid*, p1

41) 周玲玲, *ibid*, p2



### Ⅲ. 양만리 시의 인문정신

인문정신은 인류사회의 공통된 정신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자아에 대한 관심인데 대체로 “사람의 존엄, 가치, 운명에 대한 수호, 추구하고 관심이 포함된다. 하여 인류가 남긴 각종 정신문화의 현상에 대해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이는 전면적으로 발전된 이상적 인격에 대한 긍정과 구축이라 할 수 있다.”<sup>42)</sup>

양만리의 시가는 생동감이 넘치고 유머스러하면서도 수시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과 화합적인 관계를 도모하고 독립적인 인격의 함양에 초점을 두었기에 풍부한 인문적 정신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본고는 양만리 시가의 인문정신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향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 1. 인간중심과 생활에 대한 관심

시가는 시인의 개성특징과 인생이상을 반영하는 매개체이다. 이는 한 시인의 사상품성을 외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양만리는 성격이 강인하고, 성실하다. 그는 비록 일생동안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사십 여 년 동안 과거에 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자초지종 자신의 개성과 독립적인 인격을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당시 송대의 유교, 불교, 도가의 3교합일의 분위기와 문화적 환경, 선학사상은 양만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은 그로 하여금 “透脫” 지혜를 통해 가치위기의 문제와 선경과 시경을 합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42) 人文精神,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view/50585.html?wtp=tt>. 2008-03-27

양만리는 “将禅宗 随缘放旷 任性逍遥” (선종의 인연을 따라 광달했고, 자신의 본성을 쫓아 소요했다)<sup>43)</sup> 이러한 지향은 시에서 자유롭고 소요무재의 생활태도로 표상되었다.

#### 1) 자아의 개성과 독립적인 인격

양만리는 충효를 중요시하는 전통적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조 杨震은 동한에서 유명한 대신이었다. 《后汉书·杨震传》에서 기록하기를 그는 “抗直方以临枉，先公道而后身名，可谓怀王臣之节，识所任之体矣”<sup>44)</sup> (바르고 방정함으로써, 잘 못된 것에 임했으며 公道를 세우고 자신의身名을 뒤로하니 신하의 절개를 지녔으며 임무를 잘 인식 하고 있었다고 말 할 수 있다.)<sup>45)</sup> 양만리는 10세 이후, 그의 부친 杨芾 로부터 훌륭한 교육을 이수 받았다. 그의 부친은 그를 데리고 여러 곳에 가서 학문을 연마하도록 하였다. 십여년의 시간동안 양만리는 선후로 王庭珪, 刘安世, 刘才邵 등을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에 임했다. 그 이후 벼슬을 하면서 주전파 수령인 张浚, 张材, 丘璩 등의 사람을 만났다.

가정과 스승들의 영향으로 양만리의 성격은 강인하고 성실했으며, 쉽사리 자신의 의지나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일생동안 거짓을 싫어했고, 가정과 친구, 군왕에게 정직한 신념을 보여주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세상사에 임하면서도 자초지종 독립적인 인격을 견지하였다. 자신의 개성을 포기함으로써 벼슬을 얻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다. 하여 그의 친구 周必大는 그를 “立朝谔谔，知无不言，言无不尽”<sup>46)</sup> (조정에서 기탄 없이 바른말을 한다, 지식은 말할 수 없는 것이 없고 언사는 다하지 않는 말이 없다.), “折角之光” (뿔을 꺾는 강인한 응변력이 있다고 하였다). 광종황제도 그를 보고 “강인하다”<sup>47)</sup>고 평가했다.

양만리의 이러한 인격특징은 그의 시가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는 그가 어던 사물이나 인물을 칭송할 때 드러난다.

43) 李丽, ibid, p1 pp18-19

44) 《后汉书·杨震传》

45) 李丽, ibid, p1 pp20-21

46) 章楚藩等, 《杨万里诗歌赏析集》, 成都: 巴蜀书社, 1994

47) 章楚藩等, 上揭书, 1994

危亭俯凉圃，落叶日夜深。  
 佳菊独何为？开花得我心。  
 韵孤自无伴，香净暗满襟。  
 根器受正色，非缘学黄金。  
 独违春光早，而俟秋寒侵。  
 岂不爱凋年，坐令淹寸阴？  
 奈此清苦操，愧入妍华林。  
 向来朱碧丛，亦复悴斯今。  
 清霜惨万象，幽芳耿森林。  
 持以寿君子，聊尔慰孤斟？

——〈多稼亭前黄菊〉<sup>48)</sup>

높은 정자에서 음침한 마당을 내려다보니 땅위의 낙엽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두꺼워지고 있구나.  
 예쁜 노란 국화가 혼자 피었어도 그 꽃은 나를 기쁘게 하구나.  
 도도한 자태는 애초부터 동료가 없으니 상큼한 향기는 온몸을 휘감는구나.  
 국화는 뿌리부터 그 아름다움을 확정 받았으니 고귀함을 나타내려고 황금빛을 따른 게 아니구려.  
 봄빛을 피해 가을의 추운 기운을 기대하고 있으니 혹시 일 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는지 .  
 갑자기 시간 속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은 무엇인지. 그러나 이 가없는 지조대문에, 울긋불긋한 수림이 수 스러울 뿐  
 종일 빨간 꽃에 파란 잎의 꽃은 나로 하여금 금일의  
 용모를 근심케 하오니 청량한 가을 이슬은 만물을 서글프게 하나, 국화의 향기는 한기를 거스르는구나.

48) 王琦珍, 上掲书, p174

이 국화꽃을 손에 들고 군자가 장수하기를 비나오니, 이걸로  
내 외로움이나 위로해보는구려.

— <다가정 앞의 노란 국화 >

이 시의 네 번째 구절에서 시인은 이미 만개한 국화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시인은 국화의 향, 색과 추위를 견디는 자세를 통해 국화의 강인한 특징과 쉽게 타협하지 않는 성질을 묘사하며 국화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포이에드 바하가 지적하듯이: “人是在对象上面意识到他自己的, 对象意识就是人的自我意识”<sup>49)</sup> (인간은 대상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인식은 바로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봄에 만개하지 않은 가을과 겨울 사이에 피는 황색의 국화는 이른바 시인의 강인하고 권위에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특징의 시는 그의 다른 시 <谢建州茶使吴德华送东坡诗集><sup>50)</sup>에서도 나온다. 이 시에서 양만리는 역으로 부각시키는 방식을 통해 타인의 부귀와 자신의 빈곤함을 대비한다. 자신의 곤궁한 생활양상을 묘사하고, 그리고 그는 동파집에서 “东坡痴绝过于依”(동파는 나보다 한수 위다)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과 소식의 인격에서의 유사성을 밝혔다. 소식은 한번도 힘든 곤경에 처해있을 때 자신의 입장을 쉽게 변경하지 않았다. 시종 자신의 원칙을 지켰으며 양만리 또한 이처럼 강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적극적으로 소식의 만물을 초월한 소탈한 흥금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소식이 문학을 사랑하고, 농사에 심열을 기울이며, 창의적인 정신을 칭송하였는데 이 역시 양만리 자신의 인격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 2) 자유와 방임, 인연을 따른 생활에 대한 추구

이른바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선학사상의 영향을 받아 양만리의 자유를

49) 北京大学哲学系外国哲学史教研室, 《十八世纪末——十九世纪初德国哲学》, 商务印书馆, 1975

50) 王琦珍, 上揭书, p274

자신의 궁극적인 관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신의 벼슬과 세속적인 부귀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했으며, 이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든지 자신의 모든 벼슬자리를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인의 강력한 생명의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醉吟> 바로 구중에 하나 예라고 할 수 있다.

古人亡，古人在，古人不在天应改 °  
 不留三句五句诗，安得千人万人爱 °  
 今人只笑古人痴，古人笑君君不知 °  
 朝来暮去能几许，叶落花开无尽时 °  
 人生须要印如斗，不道金槌控渠口 °  
 身前只解皱两眉，身後还能更杯酒 °  
 李太白，阮嗣宗，当年谁不笑两翁 °  
 万古贤愚俱白骨，两翁天地一清风 °

—— <醉吟><sup>51)</sup>

옛 사람 죽었지만 옛 사람 살아있어  
 옛 사람 없다면 세상은 반드시 달라져 있을 것이네  
 삼구 오구의 시를 남기지 않았다면  
 어찌 천 사람 만 사람의 사랑을 얻을 수 있었으리  
 지금 사람은 옛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뿐이지만  
 옛 사람은 그대를 알지 못하는 그대를 비웃는다네  
 아침이 오고 저녁이 감이 얼마나 되었으며  
 낙엽지고 꽃이 피는 것은 다하는 때가 없다네  
 인생은 커다란 금인을 차지 해야 한다고 하지만  
 쇠망치로 그 입을 억지로 여는 것은 생각지 못한다네  
 살아 있을 때는 단지 두 눈썹 찡그린 줄 알지만

51) 王琦珍, 上掲书, p739

죽은 뒤에는 도리어 다시 술한잔 하리오  
이태백과 완사종은  
그 당시에는 누가 두 늙은이를 비웃지 았았으리  
만고의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모두 백골이 되다  
두 늙은이 천지의 한 바탕 맑은 바람이 되었다네

— < 취하여 읊다 >

그는 자신의 시에서 종종 자신은 “山水客” (산수객) ` “云外身” (운외신) ,  
“人生须要印如斗，不道金槌控渠口” (인생은 커다란 금인을 차지 해야 한다고  
하지만, 쇠망치로 그 입을 억지로 여는 것은 생각지 못한다네) <醉吟> , 귀족적  
인 권위를 매우 증오했다. <人日诘朝从昌英叔出谒> 에서는 바로 그가 자유와 방  
임, 인연을 따라 살려는 생활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出门初惮烦，载途乃忘归。  
但令我意适，岂校出处为。  
路人见我揖，属我有所思。  
我不见其面，信口聊应之。  
徐悟恐忤物，欲谢已莫追。  
我率或似傲，彼愠独得辞？

— <人日诘朝从昌英叔出谒><sup>52)</sup>

집을 나설 때는 가슴도 막혔건만, 언제부터 그것마저 잊었구려.  
이제 내 마음도 열렸으니, 그 전의 분노는 잊은 거겠지?  
길 걷던 사람이 내게 인사를 건네니, 나는 고민에 잠긴다.  
나는 그를 본적이 없는데도 그냥 대답을 했다.  
추후 나는 그게 내 오만이라는 것을 알고,

52) 王琦珍, 上掲书, p80

사과를 드리려 하나 사람은 더 이상 있지 않으니,  
내가 직설적인지, 오만방자했는지도 더 이상은 알려줄 수가 없  
구려.

— <인일은 정월 칠일이고, 인일 후는 춘경이다>

이 시의 앞 네 구절은 이른바 내가 집에서 나왔을 때, 귀찮았으나, 길을 나서  
고 보니 너무 기뻐서 돌아가는 것을 잊었다는 것이다. 자신이 편안하다면 집이든  
밖이든 무슨 상관이라. 이 시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시인이 은퇴하여  
있는 상태는 자신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손님들의 허세와 아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상대하고 있다. 이는 그 자신이 자유의 인생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소박하고 화목한 세속적 삶에 대한 지향

양만리의 시에서 대자연은 따뜻함이 넘치는 곳이다. 사람들은 모두 소박하고  
화목하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으나, 가족사이 또는 주위사람들  
과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다.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그  
의 시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田夫抛秧田妇接，小儿拔秧大儿插 °  
笠是兜鍪蓑是甲，雨从头上湿到胛 °  
唤渠朝餐歇半霎，低头折腰只不答 °  
秧根未牢茵未匝，照管鹅儿与雏鸭 °

— <插秧歌><sup>53)</sup>

남편이 모를 던지면 그 아내가 받아  
작은 아들은 모를 뽑고 큰 아들은 심는다.

53) 이치수, 上掲书, p55

샷갓은 투구이고 도롱이는 갑옷이지만  
 비는 머리부터 어깨까지 다 젖어버렸다.  
 불러 아침 먹으러 잠시 쉬라하지만  
 머리 숙이고 허리 굽힌채로 대답도 않는다.  
 모뿌리가 아직 굳지 않고 모내기는 끝나지 않아  
 조심하여 거위와 오리 새끼를 감시한다 .

— <모심기 노래><sup>54)</sup>

이 시는 시의 제목에서도 드러나 있다시피 농민들이 모심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모심기는 기간성이 매우 강한 농작업이다. 농업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일환이라고 여겨지는데, 그것은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시의 서두에서 시인은 노동의 분업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시인은 농민들이 노동에 쓰는 갖을 전사의 철모에 비교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전투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시의 앞부분과 말미에서는 시인은 농가 부부의 대화와 대화시의 정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농민들의 부지런함을 표현하고 있다. 전체 시의 언어는 산뜻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마치 전야에서 불어오는 산뜻한 봄바람마냥 개운하다. 거기에 흠냄새까지 추가된 것이어서 농가의 자손들이 힘을 모아 하늘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분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또 <次日醉归> 시의 경우,

日晚颇欲归，主人若见留 °  
 我非不能饮，老病怪觥筹 °  
 人意不可违，欲去且复休 °  
 我醉彼自止，醉亦何足愁 °  
 归路意昏昏，落日在岭陬 °

54) 이치수, 上掲书, p55



竹里有人家，欲憩聊一投 °  
有叟喜我至，呼我为君候 °  
造以我非是，俛笑仍掉头 °  
机心久已尽，犹有不平鸥 °  
田父亦外我，我老谁与游 °

——〈次日醉归〉<sup>55)</sup>

날 저물어 자못 돌아가려고 했으되 주인이 간곡히 붙잡는다  
나는 술을 마실 수 없지는 않지만 늙고 병들어 술잔이 두렵다  
마음을 거스를 수 없어 가려다가 잠시 다시 멈춘다  
내가 취하면 그는 저절로 그만둘텐데 취함을 또한 어찌 걱정하  
랴  
돌아가는 길은 정신이 흥미한데 떨어지는 해가 산마루에 걸려  
있어  
대나무 숲속에 인가가 있어 잠시 몸을 던져 쉬려고 하니  
늙은이는 내가 온 것을 기뻐하고 나는 귀인이라고 부른다  
나는 옳지 않음을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얼굴 숙이고 웃으며  
가로짓는다  
불순한 마음이 오랫동안 어어지니 오히려 갈매기가 없고  
농부도 나를 멀지 하니 나의 노년을 누구와 함께 할까

—— 〈다음날 취해 돌아가다〉<sup>56)</sup>

이 신는 아는 사람 집에 새해 인사를 갔다가 하룻밤을 묵고 돌아오는 길에 경  
협함 바를 적었다. 제8구까지는 인정 어린 접대를 받은 내용이다. 날이 저물이 시  
인이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하는데 주인이 술 한잔 더 할 것을 권해 상대의 체면

55) 이치수, 上掲書, p25

56) 이치수, 上掲書, p25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다음의 10구는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 어떤 집에 머무르세 되었는데, 주인이 시인을 높은 관리처럼 대하여, 시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그대로 믿지를 않아 상당한 곤혹스러운 느낌을 받았다 는 이야기이다. 두 이야기를 보여 주면서 현실을 살아가며 사람들과의 접촉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느끼는 시인의 마음을 나타내었다.<sup>57)</sup> 열정이 넘치고 손님을 반갑게 대하여, 소박하고 단순하다. 시인은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시골의 소박한 인정을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간의 소박한 감정을 다룬 작품을 제외하고도 양만리는 아동시도 창작하였다. 그의 아동시는 유치하고 생기발랄하며, 선량과 부지런한 배움에 간절한 아동들의 형상을 그리고 있다. 이는 안적하고 평화로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感秋二首>에서 선들의 시인이 소아와 친구로 지낸다.

今岁五十二，岂为年少人 °  
 荷凉欣暑退，蝉苦怨秋新 °  
 澹虑翻成感，雕诗不著尘 °  
 小儿知得句，频掉小乌巾 °

—— <感秋二首><sup>58)</sup>

올해 선들,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니라.  
 연꽃잎이 이제 여름이 다 가고 있음을 알리고,  
 지저귀던 매미는 가을의 도래를 고민하고 있다네.  
 혼란스런 마음을 다잡아서, 탈속한 시편을 적고 싶으나  
 어린이는 시구라도 알듯이 기뻐서 자꾸 머리의 두건을 떨군다.

—— <가을을 느끼면서 두 편>

57) 이치수, 上掲书, p25

58) 王琦珍, 上掲书, p169

그들의 관계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시인이 좋은 시구를 알게 되었을 때, 소아는 기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수건을 떨구기도 한다. 간단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인과 아동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桑茶坑道中>에서도 :

晴明风日雨干时，草满花堤水满溪。  
童子柳阴眠正着，一牛吃过柳阴西。

——<桑茶坑道中><sup>59)</sup>

바람 부드럽고 햇살 따듯하며 빗물도 다 마른 이때  
꽃과 풀이 제방에 가득하고 물이 시내에 그득하다.  
소 치는 아이는 버드나무 그늘에서 한참 낮잠을 자고 있고  
소 한 마리 풀 뜯으며 버드나무 그늘 서쪽으로 간다.

—— <상다강 길에서><sup>60)</sup>

청명한 날씨에 한적한 시골 충경을 장면을 묘사했다. 조금 전까지 내리던 비가 이제 그친 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따듯한 햇살이 내리쬐인다. 시선을 돌리면 제방엔 꽃과 풀이 가득 자랐고 계곡에는 물이 넘실대며 흐른다. 이때 화면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목동과 소인데, 목동은 소나무 그늘 아래에 낮잠을 자고 있고, 소는 혼자서 풀을 뜯으며 어슬렁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다. 시 한 구 한 구가 그림이며, 평이한 정과 동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랑과 온정이 넘친다.

## 2. 자연 친화

59) 이치수, 上掲书, p123

60) 이치수, 上掲书, p123

1) 자연을 사랑하고 일상에 주목하기

전대의 시인과 다르게 양만리의 시 창작에서 종종 “고상하고 확정된 틀”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는 세속적인 생활에 관심을 갖고 일상적인 삶에 주목했다. 그의 시에서는 나무그늘, 차 찌꺼기, 심지어 모기와 파리와 같은 전대의 시인들이 주목하지 않은 것들도 모두 그가 칭송하는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冻蝇>:

隔窗偶见负暄蝇，双脚挪攀弄晚晴。  
日影欲移先会得，忽然飞落别窗声。

——<冻蝇><sup>61)</sup>

창문 너머로 햇볕 쬐는 파리를 우연히 보았는데  
두발을 비비면서 맑은 아침 햇살을 즐기고 있네  
햇살이 옮겨 가려고 하자 먼저 눈치 채고는  
문득 다른 창문으로 날아가 앉으면서 소리를 낸다

—— <추위에 언 파리><sup>62)</sup>

파리는 지극히 미천한 존재이고 사람들이 모두 기피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상 생활에서 파리에 주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시에서 양만리는 파리가 석양에 자신의 두 발을 비비는 동작에 주목하고 이를 익살스럽게 묘사하였다.

<冻蝇>와 같은 시 밖에도, 이를 테면<檐滴><sup>63)</sup> `陈蹇叔郎中出闽漕别送新茶诗><sup>64)</sup> `<鸦> 등과 같은 시에서도 양만리는 자신의 예민한 감수성을 발휘하여

61) 이치수, 上掲书, p46

62) 이치수, 上掲书, p46

63) 王琦珍, 上掲书, p676

일상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稚子相看只笑渠，老夫亦复小卢胡 °  
一鸦飞立钩栏角，子细看来还有须 °

——〈鸦〉<sup>65)</sup>

어린이들이 까마귀를 바라보며 웃고 있고  
늙은 나도 소리 죽여 웃는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난간 위에서 있는데  
자세히 보니 까마귀도 수염이 달려 있네

—— 〈까마귀〉<sup>66)</sup>

시인은 늘 일상생활 가운데 주병의 동, 식물이나 자연 경물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어린이의 동심과도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재미있어하는 느낌을 시로 나타내는데, 이시 역시 이러한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아이들이 모여 웃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궁금한 마음에서 시인도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며, 난간 위에 서 있는 까마귀가 사람들처럼 수염이 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신기한 마음에 어린이들과 함께 웃음을 금치 못한다. 까마귀도 신체 부위에서 사람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로이 발견한 기록이다.

시인이 평범한 사물중에서 섬세함을 찾아내었고, 이들 작품에서 색다르고 창조적인 발상들로 가득 차 있다. 〈中途小歇〉와 〈理蔬〉<sup>67)</sup>도 그와 유사한 작품이었다.

山僮问游何许村，莫问何许但出门。

64) 王琦珍, 上掲书, p333

65) 이치수, 上掲书, p48

66) 이치수, 上掲书, p48

67) 王琦珍, 上掲书, p33

脚根倦时且小歇，山色佳处须细看。  
道逢田父遮依住，说与前头看山去。  
寄下君家老瓦盆，他日重游却来取。

——〈中途小歇〉<sup>68)</sup>

산집의 어린하인이 어디 마을부터 갈 것인가를 묻기에  
“어디인지 묻지 말고 집을 나서거나 하자” 말했네  
“발뒤꿈치 힘들 때는 잠시 쉬고 산경치 좋은 곳은 자세히 보아야 한다”  
길에서 만난 농부가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잠시 머무르라고 하기에  
농부에게 내가 앞산을 보러 간다고 말했네,  
“당신 집에 오래된 기와 술그릇에 술을 맡겨 놓을 테니  
나중에 다시 놀러 와서 꺼내어 마시도록 합시다.

—— 〈도중에 잠시 쉬다〉<sup>69)</sup>

이 시는 산을 구경하러 집을 나선 이야기를 다루었다. 전반부에서 어린 하인과 대화에서 격의 없는 정이 느껴지며, 후반부에서는 길에서 농부를 만나 정감 어린 대화를 서로 나누었다. 이 농부는 서로 아는 사인인 듯, 시인에게 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자기 집에 들어와 술이나 한잔하자고 권했다. 이에 시인은 오늘은 산을 구경하러 가는 일이 바쁘니 나중에 다른 날을 기약하자고 대답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이른바, 농부의 집에 맡겨 놓는다는 기와 술그릇의 술은 사실 시인 자신이 가져온 것이 아니고 농부가 지금 권하는 술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니 훨씬 유머러스한 느낌을 준다.

이들 작품에서 시인은 직접 세속적인 삶에 개입하여 산문의 형태로 시를 창작

68) 이치수, 上揭书, p134

69) 이치수, 上揭书, p134

한다. 그는 평범한 생활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인생을 관찰하는데, 이는 송대의 이학에서 “存天理，灭人欲”（하늘의 이치를 지키며, 인간의 욕망을 없앤다）는 사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시를 창작함에 있어서 시종 시가의 “맛”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 맛을 언급한 시작품은 매우 많다. 대체로 입으로 느끼는 “맛”，화초와 나무가 풍기는 “맛”，복잡한 감정의 “맛”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앞서 두 가지는 전문에서 언급했던 소시들과 마찬가지로 양만리가 세속적인 인생에 대한 긍정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양만리는 그의 친구들과 식품을 주고받으며 서로 교류하였다. 그리고 양만리는 외지에서 벼슬을 하고 있을 적에도 시종 자신의 고향인 짱시의 맛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하여 짱시의 너구리, 참새와 같은 특산물들은 그의 시작품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기타 음식은 이를테면 회백어, 수정회, 죽순, 야생고사리, 여지 등이 있다.<sup>70)</sup> <食蛎房><sup>71)</sup>라는 시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대표하는 시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蓬山侧畔屹蚝山，怀玉深藏万岳间” 굴의 껍질을 평래산의 굴산에 비교했다. 굴의 속살을 산속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옥에 비교했다. 생동한 비교로 말미암아 굴의 형태는 독자들에게 생동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굴의 속살이 신선하고 연한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여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식욕을 일게 한다.

양만리는 음식의 외형, 색상, 풍미에 대해서 묘사하는 동시에 “음식은 정갈할수록 좋고, 고기는 적게 먹을수록 좋다”는 전통을 이어받아 요리의 방법을 자신의 시가에도 접목하였다.

이밖에도 양만리는 각종 미식에 대해 비교하였는데 예를 들면 <晨炊杜迁市煮笋>에서는 금령의 죽순이 맛이 없어 마치 돌과 같다고 지적하였다. 金陵의 순은 바삭하고 향기가 난다고 평가했다.

양만리는 나무와 꽃의 향기를 묘사한 시도 창작했는데, 이러한 시는 양만리의

70) 张致青, 上揭书, p1

71) 王琦珍, 上揭书, p310

시에서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毕竟西湖六月中，风光不与四时同 °  
接天莲叶无穷碧，映日荷花别样红 °

—— < 晓出净慈寺送林子方 ><sup>72)</sup>

역시 서호의 6월 경치가 다른 계절과 다르도다.

하늘에 닿은 연잎은 한없이 푸르고 햇살에 비친 연꽃은 유달리  
붉도다.

—— < 새벽에 정자사를 나와 입자방을 전송하며 ><sup>73)</sup>

이시는 西湖 의 빼어난 경치를 노래했다. 예로부터 사람이 살기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흔히 苏州 와 杭州 를 들기도 하는데, 항주의 대표적인 명승지가 바로 서호다. 시인이 보기에 이 서호는 1년 중 특히 6월의 경치가 다른 계절보다 더 뛰어나다. 구체적인 연꽃을 서호의 대표적인 미경으로 들며 “碧” 과 “红” 이라는 색채어를 사용해 집중적으로 묘사했다. 이 “碧” 은 “하늘에라도 닿을 듯한” 이 “莲” 은 “잎의 한없는 푸름” 이고, 이 “红” 은 “햇살을 받아 빛나는 연꽃의 아주 남다른 붉음” 이다. 두색채의 강렬한 대조를 통해 서호의 멋진 경치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雨来细细复疏疏，纵不能多不肯无 °  
似妒诗人山入眼，千峰故隔一帘珠 °

—— < 小雨 ><sup>74)</sup>

비가 가늘게 내리다가 다시 성겨 지지면.

72) 이치수, 上掲书, p73

73) 이치수, 上掲书, p73

74) 이치수, 上掲书, p20



더 내리지도 않고 그치지도 않네.  
나의 눈에 산이 들어와 보이는 것을 질투라도 하는 듯  
일부러 구슬밭 하나 펼쳐 천 개 산봉우리 가려지게 만드네.

— <가랑비><sup>75)</sup>

이 시는 여행 도중에 비를 만난 경험을 노래했다. 비는 더 많이 내리지만, 그렇다고 아예 멈추지도 않은 채 가랑가랑 내린다. 그런데 시인이 보기에는 이 비는 멀리 있는 산들의 멋진 경치가 시인의 눈에 다 들어가 시인의 마음을 끄는 것을 시샘, 질투하는 듯, 시인과 산들 사이에 “일부러” 방울방울의 가랑비들이 모여 이루어진 구슬밭을 펼쳐 놓아 산이 보일 듯 말 듯하게 만들고 있다. 시를 보면서 시인의 자연과 생활에 대한 사랑을 담아내기도 한다.

## 2) 자연산수의 세속화, 인정화

시가는 시인이 정감활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하여 시에서 묘사되고 있는 정경도 시인의 감정과 구분할 수 없다. 배경이 유하사고 강렬한 주관적 감정을 함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만리 이전에 시인들은 대체로 자연의 산수를 순결한 이상적 경지로 삼았다. 다시 말해 추악한 현실 세계와는 대립적인 면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시를 창작함에 있어서 산수를 대체로 조용하고 맑은, 정취가 느껴지는 우아한 세계로 묘사하였다. 이를테면 谢灵运의 시에서 칭송하는 것은 대체로 대자연의 웅장한 것들이었다. 이는 대체로 우리로 하여금 아직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러한 산수를 연상하게 한다. 이밖에도 산수전원의 대표시인 王维는 종종 송죽, 명월, 맑은 샘물, 산석, 백운 등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만 인간 세상을 초월한 산수경물을 선택하여 세속을 벗어난 맑고 아름다운 초현실적인 경지를 묘사하였다.

그러나 양만리의 시에서 그는 세속적인 것에 대해 애정을 갖고 묘사하였다. 이는 아마도 송대의 이학자인 张载의 “物吾与也” (만물이 나와 함께 어울린다)의

75) 이치수, 上掲书, p20

사상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sup>76)</sup> 그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원시의 감각을 되찾음으로써 자연과 친연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이로써 그의 시는 한 단계 승화하게 된 것이다. 그는 광범위하게 의인법을 통해 객관적인 경물의 묘사하였다. 하여 산수와 샘물과 인간 세상은 통일된 전체를 이루게 된다. 자연의 산수가 일상을 벗어난 경지에서 다시 세속적 인간세로 되돌아옴으로써 희극적 색채를 배가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시는 산수의 정경 속에 각종 곤충들이 지저귀는 생기가 충만한 세상이다. 예를 들면:

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  
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小池〉<sup>77)</sup>

샘물 구멍은 소리도 없이, 가는 물줄기도 아끼는 듯.  
나무 그늘이 물에 비치어며 맑은 하늘과 바람 사랑하네.  
작은 연꽃은 이제 막 뽕족한 끝을 물 밖으로 내놓는데  
벌써 잠자리가 그 위에 앉네.

—— 〈작은 연꽃〉<sup>78)</sup>

이 시는 생기가 충만하고 온화한 작은 연못을 그린 작품이다. 시의 서두에서 시인은 물의 형태에 대해서 묘사하였다. 그는 “소리 없고”, “가늘고”, “아쉬운” 등의 단어를 통해 작은 연못의 물이 가늘게 흐르는 아름다운 정경을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시인은 연못가에 있는 울창한 나무들을 그리는데, 가늘고 긴 가지들이 수면위에 하느작거리는데, 이러한 봄기운을 듬뿍 담은 정경은

76) 蔡育坤, <自然境界中自我的泛化与发现——王维、杨万里个案简析>, 成都教育学院学报, 2006, 20 (02)

77) 이치수, 上掲书, p34

78) 이치수, 上掲书, p34

연못과 경이로운 조화를 이룬다. 이 시구에서 시인은 유순한 것을 통해 맑음을 조명하고, 아름답고 맑은 봄의 정경을 여과 없이 독자들에게 펼쳐 보인다. 하여 독자들은 더 이상 정체적인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따듯한 정감이 감도는 장면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리고는 두 번째 구절에서 “才露尖尖角” 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연꽃 위에 앉은 작은 잠자리를 묘사하고 있는데 화면이 보다 역동적으로 다가온다. 여기서 “才” 라는 글자는 새롭게 자란 연꽃이 물위에 고스란히 자신의 모습을 보인 장면을 생기 있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연꽃 위에 멈춘 작은 잠자리는 작은 연꽃의 무한한 정감을 보태준다. 이로써 작은 연못은 보다 생기발랄하고, 정취가 느껴지는 곳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온다.

<小池>을 제외하고도 그의 작품 중 <病后觉衰> 에와 같은 시들에서도 강렬한 생명적 기운과 활력을 보여주고 있다.

病著初无恼，安来始觉衰 °  
 人谁长健底，老有顿来时 °  
 山意凄寒日，秋光染瘦诗 °  
 小松能许劣，学我弄吟髭 °

—— <病后觉衰><sup>79)</sup>

병이 들었을 때 처음에는 괴로움 같은 것 없었으나  
 몸이 편해지자 비로소 노쇠함을 느끼겠네.  
 사람이 누군들 오래도록 건강할 수 있겠는가  
 늙음이란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잇는 법.  
 산의 모습은 차가운 해빛이 쓸쓸하게 바뀌고  
 가을 경치는 바짝 마른 나의 시를 더욱 힘 있게 물들이네.  
 작은 소나무는 이렇게나 장난이 심해  
 내가 시 지을 때 메밀의 수염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흉내 는

79) 이치수, 上掲书, p60

구나.

— <병든 뒤 노쇠함을 느끼며><sup>80)</sup>

이 시는 병을 앓고 난 뒤에 뒤에 감회를 나타냈다. 자연의 만물은 양만리에게 늘 존재를 새로이 발견하는 재미와 기쁨을 주는데 오늘도 그러하다. 작은 소나무가 양만리의 시 지을 때 버릇은 코밑의 수염을 만지작 거리는 것을 흉내 내기라도 하는 듯, 자기 나뭇잎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웃음을 금치 못하면서 잠시 시름을 잊는다.

양만리의 산수시는 세속적인 경물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그가 묘파한 산수는 사람들의 감정과 사상 행위 성격, 정취 등을 잘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들이 독자들에게 잘 전달되어 사람들이 세태와 인정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를테면 <秋山> :

乌柏平生老染工，错将铁皂作猩红。  
小枫一夜偷天酒，却倩孤松掩醉容。

— <秋山><sup>81)</sup>

오구나무는 일생토록 숙련된 염색공이다  
검은색을 성홍색으로 잘 못 물들였네  
어린단풍 하룻밤새 감로주 흠쳐마시고  
고고한 소나무에게 취한 얼굴 숨겨 달라하네

— <추산>

오구나무는 평범한 교목이다. 그러나 시인은 이를 자신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의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첫 번째 구절에서 시인은 익살스럽게 이를 늙은 염

80) 이치수, 上掲书, p60

81) 王琦珍, 上掲书, p462

색공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칭은 오구나무에 대한 칭송이라고 볼 수 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인정미가 넘쳐흐르고 있다. 시에서 오구나무는 일생을 자신의 아름다운 색채로 가을의 산을 염색하고 있는데 노고를 모른다. “늙은 염색공”이라는 칭호는 이보다 적절할 수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타인만 신경 쓴 나머지 깜빡하여 색상을 잘못 선택하였다. 자신의 나무를 갈색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오구나무를 희롱한 후 시인은 다시 화제를 돌려 젊고 지혜가 많은 단풍나무를 그린다. 작은 단풍나무는 활발하여 밤에 서왕모의 선술을 훔쳐 마신 이유로 온 몸이 빨갭게 물들었다고 한다. 오구나무 할아버지에게 질책 받을 것이 두려워 고송에게 빌어 자신의 취한 모습을 가려달라고 사정한다. 시에서 칭송, 빨간 단풍나무, 오구나무는 서로 어울리어 이른바 친구들처럼 묘사된다. 하여 시에는 인간세의 온정이 감돌아 쓸쓸한 가을 산이 생명력이 넘쳐흐르게 된다. 82)

이밖에도 자연경물과 시와 인간의 우애와 경쟁이 넘치는 작품이 더 있다:

岭下看山似伏涛，见人上岭旋争豪 °  
一登一陟一回顾，我脚高时他更高 °

——〈过上湖岭望招贤江南北山〉之二<sup>83)</sup>

고개 아래에서 산을 볼 땐 엎드려 있는 파도 같더니  
사람이 고개를 오르는 것을 보자 금세 누가 더 뛰어난가 경쟁  
하네.

한 번 오르고 오를 때마다 한 번 둘러보니  
내 발이 높은 곳 디딜 때 그 산은 더욱 높은 곳에 있네.

——〈상호령을 지나가면서 초현강의 남쪽과 북쪽 산을 바라보며〉<sup>84)</sup>

이 시는 산행의 경험을 노래했다. 평소에 등산을 하다 보며, 처음엔 아래에서

82) 韩梅、李芳琴, 上掲书

83) 이치수, 上掲书, p82

84) 이치수, 上掲书, p82

산을 바라보며 산이 그다지 높다고 생각지 않고 올라가지만, 실제로 산길을 가다 보면 체법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도 둘러보면 산은 여전히 저 멀리 높이 있는 알개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시는 이런 경험을 마치 산이 등산객과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높은 곳에 먼저 올라가나 경쟁을 벌이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산을 의인화하면서 시인 자신이 상호령을 지나가며 겪은 경험을 유머러스하게 나타내었다. 양만리의 시에 보이는 자연은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시인과 감정을 서로 교류하면서 동작을 서로 주고받기도 한다.

清风索我吟，明月劝我欢 °  
醉倒落花前，天地即衾枕 °

— <又自赞><sup>85)</sup>

청풍은 날더러 시 한 수 읊조리라 하고 명월은 날더러 술 한잔권하네.  
취해 낙화 앞에 쓰러지니 하늘과 땅이 바로 내 이불이요 베개라.

— <또 나를 돌아보며><sup>86)</sup>

이 시는 양만리가 비서답에서 강차 강동전운부사(江东转运副使)로 나가게 되었는데, 나이가 아직 일흔이 되지 않았으나 물러나 南溪에서 은거했다. 낡은 집 한 칸에서 겨우 비바람을 피했다. 严陵 의 决曹 벼슬하는 易允升이 시인의 초상화를 보내주어, 이에 액자에 글씨를 쓰고 이어서 시를 짓게 되었다. 부귀공명(富贵功名)에 연연하지 않고 대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삶을 양만리는 일생 추구했는데, 이 시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sup>87)</sup>

이러한 시들에서 시인은 직접 자연의 산수에 개입하여 대화를 나눈다. 이러한 정경은 온정이 넘치며 세속적인 삶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85) 이치수, 上掲书, p146

86) 이치수, 上掲书, p146

87) 이치수, 上掲书, p146

### 3. 사회에 대한 관심

양만리는 송, 금이 대립하던 시기에 태어났다. 그 시기 많은 북방의 영토가 이족의 통치하에 귀속되었는데, 남송도 역시 안전하지는 못했다. 양만리는 많은 다수의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济苍生, 扶社稷” (창생을 구원하고, 사령을 보조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있었다. 그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서민들의 빈곤한 삶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여 그는 실직한 후에도 국가와 서민들의 삶을 걱정하였다. 이러한 그의 감정들이 양만리의 시작품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난다.

#### 1) 서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관심

양만리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애초부터 평민의식을 갖고 있었다. 하여 고난 중에 허덕이는 민중들에 대해서 깊은 동정의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학가로서 그는 张载의 “만물을 사랑(民胞物与)” 하는 사상을 받아들였다. 하여 그는 인애를 갖고 세상사를 대하기를 주장하였다. 그는 종종 백성들의 고통스런 삶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여 그는 자신의 벼슬자리를 잃고 곤경에 빠졌을 때에도, 자신의 불행을 원망하지 않고 불쌍한 백성들의 삶을 걱정하였다.

시골에서 많은 세월을 보낸 양만리는 농업이 국가의 기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여 그는 농업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모든 일거일수족은 농민들의 생활과 연관되어 있었다. <农家叹><sup>88)</sup> `<观稼><sup>89)</sup> `<江山道中蚕麦大熟><sup>90)</sup> `<雨后田间杂记><sup>91)</sup> `<十月久雨妨农收, 二十八日得霜遂晴, 因喜而赋之><sup>92)</sup> `<入建平界><sup>93)</sup> 등과 같은 시작품들은 모두 작가가 재난을 당한 농민들에 대한 걱

88) 王琦珍, 上掲书, p38

89) 王琦珍, 上掲书, p112

90) 王琦珍, 上掲书, p230

91) 王琦珍, 上掲书, p608

92) 王琦珍, 上掲书, p772

정에 그리고 있고, 풍년을 맞은 후의 희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들은 모두 양만리가 마음 속 깊이 민생에 많은 애정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悯农> :

稻云不雨不多黄， 荞麦空花早着露。  
已分忍饥度残岁， 更堪岁里闰添长。

——<悯农><sup>94)</sup>

벼는 구름 같으나 비가 내리지 않아 누렇게 익은 것이 적고  
밀과 보리는 알맹이 없이 꽃만 피었는데 일찍 서리를 맞았구나.  
자신의 분수는 굶주림을 참고 남은 해를 넘기는 것인데  
윤달이 있어 길어진 해를 다시 견뎌야 하는구나.

—— <불쌍한 백성들><sup>95)</sup>

<悯农> 이 시는 양만리가 송효종 융흥 2년(1164년)에 부친이 병이 위급하여 杭州에서 江西 吉水の 고향으로 돌아갈 때, 농가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걱정의 감정을 담아 즉각 창작한 것이다. 이 시의 앞서 두 구절에서는 사실을 그렸는데, 즉 시인 자신이 눈으로 확인한 자연재해를 서술했다.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해 수전들은 갈라 터졌고, 곡식들은 모두 성숙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여기서 “云”이라는 글자는 곡식들이 얼마나 많으며, 재해는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파를 만나 메밀은 모두 서리를 맞았다. 농민들은 이러한 상황 하에 생활을 유지해야 했던 것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구절에서 시인은 농민들의 삶이 얼마나 각박한 것인지를 그리고 있다. 재해를 맞아 농민들은 필연코 굶주리고 연말을 보낼 것이다. 마침 그 해가 윤년이라서 평소보다 한 달이 더 길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고난의 시기도 더 길어진 것이다. 하루를 버

93) 王琦珍, 上掲书, p572

94) 王琦珍, 上掲书, p33

95) 王琦珍, 上掲书, p33



티기 힘든 상황이기에 시인은 이러한 농민들의 감정을 자신의 시에 담았던 것이다. 이는 작가가 농민들의 곤궁한 삶에 동정을 하고 있다는 감동적인 예술적 서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양만리가 농업과 농민에 대한 관심은 이밖에도 <再观十里塘捕鱼有叹><sup>96)</sup> `<发孔镇晨炊漆桥道中纪行><sup>97)</sup> `<旱后郴寇又作> `<和萧伯振禱雨><sup>98)</sup> 등의 작품에서 통치계급들의 악랄한 착취를 그려는 것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和籴’ , 은 ‘助军粮草’ 인데, 군청에서 군수물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중들에게 강제로 양식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애초에 정가를 통해 지불했지만 추후에는 점차 가격을 낮추고 양식은 더 많이 요구한다. 그리고 조정에서 지급한 양식 구매 재물도 모두 관청에서 자신의 것으로 점유하고 양식을 판매한 농민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명목적으로는 판매라고 하지만 실체는 약탈의 한 형식이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관청에서 요구한 값으로 농민들이 팔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패와 착취의 형태는 많은 문제를 낳았다.<sup>99)</sup>

<旱后郴寇又作><sup>100)</sup> 이 시는 시인이 천도원년(1165년)의 两淮, 湖南의 가뭄에 대해 묘사함으로써 민중의 삶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시의 첫째 구절과 둘째 구절에서는 “自怜秋蝶生不早, 只与夜蛩声共悲。” 봄에 태어나야 할 나비가 가을에 태어났다고 한탄하고 있다. 평화의 시기에 태어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매미와 함께 애절한 곡을 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민중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날로 초조하여 하늘과 땅이 좁게 느껴진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시구를 남겨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한탄한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는 “饿夫相语死不愁, 今年官免和籴不” (죽음도 두렵지 않지만 올해의 세금은 면제할 수 없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마음속 깊이 농부들의 삶에 대한 우려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전편의 시는 우울하고 작가의 애민의 감정을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다.

---

96) 王琦珍, 上掲书, p450  
 97) 王琦珍, 上掲书, p569  
 98) 王琦珍, 上掲书, p41  
 99) 张瑞君, 上掲书, 2006  
 100) 王琦珍, 上掲书, p41

## 2) 사회현상 풍자

양만리는 어려서부터 부친을 따라 독서를 하였는데, 그는 杨沛 `高守道 `王庭珪 `张浚 등의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았다. 이들은 모두 정의로운 지사이며 금의 침략에 대해 반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영향을 받고 친구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양만리 또한 국가를 흥행하고 사령을 보조할 것을 자신의 일생의 사명으로 삼았다. 그는 애국지사로서 일생을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였다. 그의 시에서는 종종 국세에 대한 우려의 감정을 토로하고, 중원에서 이족들의 침략으로 함락된 지역의 서민들의 삶을 걱정하였다. 그는 집에서 쉬는 기간에도 국가의 대사에 대해서 걱정하곤 하였는데, 특히 그는 금나라의 특사로 임명되었을 때 창작한 일련의 시편들은 남송의 왕조에 대한 감탄과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책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순희 16년 (1189년), 양만리는 금국에서 오는 특사를 맞는 직위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 직무는 소희 원년(1190년)봄 까지 지속되었다. 직위의 필요에 의해 그는 금국에서 오는 특사들을 상대해야만 했다. 적국에서 오는 특사들을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의를 갖추어야 했다. 양만리는 이에 대해 매우 고민에 잠겼다. 이러한 정서가 그의 <迎使客夜归><sup>101)</sup> 제 3와 제4 두편의 시에서 드러나 있다. 이 두시는 모두 시인이 금나라에서 매년 파견해오는 특사들을 맞이하는 사건을 다루었다. 황제의 생신이나 원단에 축하의 의미로 특사를 보냈는데, 양만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음주로써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달랬다. 시의 행간에는 모두 무능한 조정에 대한 분개의 심정이 엿보인다. 금나라 사람에 대한 분개와 잃은 국토에 대한 갈망을 시에 담았던 것이다.

<雪霁晓登金山> 라는 시에서도 시인은 조정의 “偏安一隅” ( 조그만 영토에 안거함을 만족해하다)에 대해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표하였다.

焦山东, 金山西 °金山排霄南斗齐 °天将三江五湖水, 并作一江字  
扬子 °来从九天上, 泻入九地底 °遇岳岳立摧, 逢石石立碎; 乾坤气力

101) 王琦珍, 上揭书, p196

聚此江，一波打来谁敢当 °金山一何强，上流独立江中央 °一尘不随海  
 风舞，一砾不随海潮去 °四旁无蒂下无根，浮空跃出江心住 °金宫银阙  
 起峰头，槌鼓撞钟闻九州 °诗人踏雪来清游，天风吹依上琼楼，不为浮  
 玉饮玉舟 °大江端的替人羞，金山端的替人愁 °

——〈雪霁晓登金山〉<sup>102)</sup>

초산은 양자강 동쪽에 있고 금산은 양장강 서쪽에 있는데 금산  
 은 구름 밀치고 올라가 남두성과 나란히 있네. 하늘이 여러 강과  
 호수를 합쳐서 강을 하나 만들고 이름을 양자강이라 했네. 강물  
 은 하늘 저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와 땅의 가장 낮은 곳 바닥으  
 로 쏟아져 들어가네. 산을 만나며 산이 즉시 무너지고 돌을 만나  
 며 돌은 즉시 부서지네. 천지간에 기운과 힘이 이 강에 모여드니  
 파도가 한번 휘몰아쳐 오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금산은 어  
 쩌면 그리 강하지 상류의 강 중앙에 홀로 서 있네. 먼지 하나도  
 바닥바람을 따라 춤추지 않고 조약돌 하나도 바다 조수를 따라  
 흘러가지 않는다네. 사방에 줄기도 없고 아래에 뿌리도 없이 허  
 공에 뛰어올라 강 한복판에 터를 잡네. 금 궁월 은 궁월이 산 머  
 리에 솟아 있고 북 치고 종 치는 소리 온 천하에 울려 퍼지네.  
 시인 내가 눈을 밝고 이곳에 와 청아하게 유란하니 하늘의 바람  
 이 나에게 불어와 백옥 누각에 오르도록 하는데 이번 걸음 은  
 부옥산에서 술을 즐기려는 것이 아니네. 큰 강은 정말이지 나를  
 대신해 부끄럽게 여기고 금산도 정말인지 나를 대신해 근심에 잠  
 기도다.

—— 〈눈 그치자 새벽에 금산에 오른다〉<sup>103)</sup>

102) 이치수, 上掲书, p111

103) 이치수, 上掲书, p111

이 시는 모두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앞부분은 경물을 묘사하고, 뒷부분은 서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시의 첫 부분에는 금산의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금산의 웅장한 산세가 하늘을 치오르고, 그 높이는 남두와 비견할만했다. 그 산 밑에서 면 양자강이 호탕하게 흘러내려 먼 구천에서 바다로 흘러간다. 금산은 그만큼 견고하여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모래 한 올 날리지 못한다. 강물이 아무리 무섭게 흘러내려도 작은 돌맹이 하나 휩쓸지 못했다. 사면으로 기대고 있는 바도 없고 바닥에도 뿌리를 내린 것도 아니지만 마치 거대한 신용마냥 그림을 뚫었다.

시의 두 번째 부분에서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눈이 그친 후의 아침, 금산에는 쌓인 눈이 녹지 않고 은빛세계로 장식되었다. 시인은 눈을 밝으며 등산을 한다. 유쾌한 심정이야 하나 이러한 경물에도 굴욕감과 고통의 심정을 숨길 수 없었다. 송왕조의 당당한 조정 벼슬로서 그는 어쩔 수없이 웃어야 했고, 머리를 숙여서 적국의 특사들을 맞이해야 했다. 남송의 통치자는 정국을 돌보지 않고 민족이 굴욕을 맞이하도록 방치하였다. 그리하여 양자강도 그들의 수치를 느끼고, 금산도 이를 위해 고민에 휩싸였다고 한다. 전편의 시는 기세가 웅장하고, 구조가 비상하다. 통치자가 적극적으로 쟁취하여 잃은 국토를 다시 되찾기 원하는 시인의 절절한 마음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남송시기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통치자는 강남의 안일한 생활에 삶에 대한 의지를 잃고 부패와 타락이 성행했다. 간신배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있고, 사회적으로도 사치가 성행했다.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가무에 빠져 일상을 즐겼다. 양만리는 현실사회에 관심이 많은 시인으로써 시가의 교화를 통해 사회를 정화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사회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는 끊임없이 시대와 사회를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는 남송의 사회에 부패와 사치의 풍조를 비평하였다. 이를 테면 <郡中上元灯減旧例三之二而又迎送使客><sup>104)</sup> 중에 “买灯莫费东坡纸，今岁鳌山不入宫” (등불이 구입하되 동파지를 낭비하지 말라, 자라형태 등불을 갖고는 궁에 들어가지 말

104) 王琦珍, 上掲书, p211

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시는 각각 郡城常州와 京都 杭州의 상원절에 등불 놀이 하는 정경을 그렸다. 조공을 바쳐야 하는 이유로 남송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부담이 매우 심각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궁중에 등불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월 대보름이 되자 京都에서 주군에 이르기까지 등불놀이는 여전하였다. 가무도 여전했다. 《郡中上元灯减旧例三之二而又迎送使客》중에 “满城只道欢犹少，不道谯门冷似铁” (저갓거리에 웃음이 아직 부족한데, 병방 마루에 쇠와 같은 추위가 더 말하지 마라)라는 구절 나오는데, 양만리는 대비의 수법을 통해 성내 명절을 즐기는 장면과 변방에서 사병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보초를 지키는 장면을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무와 놀이에 대한 풍자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제를 비평함과 동시에 양만리는 당시의 통치자들도 비판하였다. 그는 통치자들이 낭비를 일삼고, 절제하지 않고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조정의 관리들이 아침이나 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탐관오리들이라고 비판하였다. <和范致能参政寄二绝句>

梦中相见慰相思，玉立长身漆点髭。

不遣紫宸朝补衮，却教雪屋夜哦诗。

——<和范致能参政寄二绝句><sup>105)</sup>

꿈을 통해서야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위로할 수 있군요  
꿈속에서 당신은 흰칠하게 서있고 입가에는 털수룩한 수염이  
자랐구나.

그것은 아침 새벽에 궁전에서 제왕의 실책을 시정하는 것이 아  
닌

눈 내리는 밤에 집에서 시를 읊고 있군요.

—— <범지능 참정에게 보내는 절구시>

105) 王琦珍, 上掲书, p197

순희 5년(1178년)에 범성대는 사천에서 도성 향저우로 불려갔다. 4월부터 정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송효종과 정치적인 입장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두 달 후 파면되었다. 양만리는 친구의 처지를 깊이 동정하며 아래와 같은 시를 적었다. 앞의 두 구절에서 시인은 그리워서 꿈에서 만나고, 꿈을 통해 다시 그리워한다는 구절을 통해 두 사람간의 우정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신선과 같은 자태를 뽑내고 먹감을 칠한 듯한 수염을 갖고 있다는 범성대의 형상을 묘사하였다. 3.4절에서는 논의에 들어간다. 즉 이처럼 정직한 관리가 황제를 보필할 수 없고 작은 초막에서 시나 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그는 황제가 소인들에 둘러싸여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분강개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시에서 제기한 문제는 보편적으로 전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偶尔相逢细间途，不知何事数迁居。<sup>°</sup>  
微躯所饫能多少，一猎归来满後车。<sup>°</sup>

——〈观蚁二首〉<sup>106)</sup>

우연히 서로 만나자 자세히 길을 묻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자주 거처를 옮기네.  
작은 몸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함 번 사냥하고 돌아올 적엔 뒤따르는 수레가 가득 차네.

——〈개미를 보고 지은 두 수〉<sup>107)</sup>

외형적으로 볼 때, 작품은 단지 개미가 번뇌를 못 이겨 끊임없이 분주히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들의 명예만을 위해 골몰하는 자들을 풍

106) 이치수, 上掲书, p43

107) 이치수, 上掲书, p43

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명예만 추구하고, 일생을 끊임없이 번뇌 속에 살고 있는 상황을 비극적인 운명이라고 시인은 보았던 것이다.

## IV. 결론

중국의 전통문화는 그 역사가 긴데, 인문정신은 그 긴 역사의 과정에서 발전을 거쳐 왔다. 이는 중국 사람들이 자신의 대한 사고와 인생과 세계의 존재의미에 대한 추구를 통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존재 자체로도 생존과 발전공간 및 전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사회여서 당대의 대학생들은 극도로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각종 유혹으로 인해 인문정신을 잃고, 도덕적 부패와 타락에 휩싸이게 되는데 당송시가는 이러한 상황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정신적인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경박한 세계를 살아가는데 있어 당송시가는 일종의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이 힘겹고, 우울한 감정에 빠질 때 당송시가는 중요한 안정제가 될 수 있다. 감정적 차원에서나 도덕적 차원에서나 모두 숭고한 사상적인 감명을 받아 자신의 정신적 경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당송시가는 고상하면서도 통속적이어서 누구나 감상할 수 있어 모든 이가 쉽게 접할 수 있다. 거기에 담긴 적극적인 인생관, 천하를 구제하려는 책임의식, 진정한 우정, 궁극적인 생명에 대한 배려와 관심 등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만리 시의 인문정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을 중심으로 생명의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개성있는 인격으로 자유로운 삶에 대해 지향하였다.

둘째, 낙천적인 생각으로 일상속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자연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셋째, 애국애민의 마음으로 서민들의 삶을 걱정하며, 풍자적인 시를 통해 사회현상에 대해 많이 비판하였다.

양만리는 송시의 대표작가로서 유불도 3가의 사상을 바탕으로 시를 통해 세속



적 인간의 삶에 대해서 노래하였다. 그는 삶에 대해 열정을 갖고 중국의 전통적 인문정신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의 시작품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예술적 생명력을 잃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요소이며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갖는다. 하여 인문정신은 반드시 사회적인 정신역량으로 부각되어 사회와 결제발전에 이바지되어야 한다.

## V. 참고문헌 :

- 王琦珍, 《杨万里诗文集》, 江西人民出版社, 2006
- 杨万里, 《杨万里诗集》, <http://book.5ilog.com/cgi-bin/mz/poetry/>
- 이치수, 《양만리시선》, 지식을만드는지식, 2017.12
- 北京大学哲学系外国哲学史教研室, 《十八世纪末——十九世纪初德国哲学》, 商务印书馆, 1975
- 章楚藩等, 《杨万里诗歌赏析集》, 巴蜀书社, 1994
- 刘伙根, 彭月萍, <论杨万里的讽刺诗及其诗学底蕴>, 江西社会科学, 2007(04)
- 张玖青, <杨万里的诗学味论新探>, 沈阳工程学院学报(社会科学版), 2007, 3(04)
- 柯素莉, <开辟新境的诚斋山水诗——兼论杨万里山水诗的主体情感体验及其谐谑>. 江汉大学学报, 1999, 16(02)
- 韩梅, <论“诚斋体”山水诗的世俗化倾向>. 中国海洋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7(01)
- 曹金贵, <试论杨万里山水诗的主观色彩>. 新乡师范高等专科学校学报, 2003, 17(01)
- 金五德. <内师心源, 外师造化——杨万里诗歌散>. 长沙水电师范学院(社会科学版), 1994(04)
- 张瑞君, <论杨万里的人格>, 天津师范大学学报, 1999(06)
- 韩梅, <论杨万里山水诗中的谐趣、奇趣与理趣>, 名作欣赏, 2007(16)
- 韩梅, 李芳琴, <别眼看天公: 理学观照方式对“诚斋体”诗的影响>, 胜利油田职工大学学报, 2007, 21(06)
- 李丽, <杨万里诗的“透脱性”表现>, 河北职业技术学院学报, 2005, 02(04)
- 蔡育坤, <自然境界中自我的泛化与发现——王维、杨万里个案简析>, 成都教育学院

- 学报, 2006, 20(02)
- 张瑞君, <广阔社会生活与丰富内心世界的表现——杨万里诗歌的内容>, 忻州师范学院学报, 2001, 17(5)
- 颜文武, <论“禅悟”对杨万里诗歌创作的影响>, 黔南民族师范学院学报, 2007(02)
- 祁民建 左怀选, <“诚斋体”的活法>. 开封大学学报, 2007(01).
- 郭艳华, <“格物致知”和“诚斋体”——理学、禅学对杨万里文学思想的影响>, 宁夏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06, 28(01)
- 蒋蓉, <杨万里的诗歌童真与托物寄>, 求索, 2007(07)
- 胡迎建, <论杨万里的文学思想及其诗论>, 江西社会科学, 1999(03)
- 张瑞君, <杨万里诗歌的意象特征>, 山西师大学报(社会科学版), 2002, 29(02)
- 郭艳华, <论杨万里“性灵”观的诗学内涵及理论意>, 宁夏社会科学, 2006(03)
- 李青云, <吟咏唐宋诗词建构人文精神——唐宋诗词人文精神解读>, 牡丹江大学学报, 2008, 17(03)
- 李晓婉, <古代田园诗中的人文精神>, 探索与争鸣, 2007(08)
- 刘天娥, <哲学视界中的人文精神>, 湖南民族职业学院学报, 2007(09)
- 吴承笃, <人文精神的生态视野>, 东疆学刊, 2005, 22(02)
- 陈雪婧, <中国古典人文精神的现代意义>, 边疆经济与文化, 2007(06)
- 张丽娟, <浅谈中国古典诗词中的人文精神>, 正德学院学报, 2006, 04(02)
- 周玲玲, <人文·人文精神>, 中国校外教育下旬刊, 2009

